

| SRI-전략-2025-03 |

# 수원시민의 생애주기별 특성 변화 분석

An Analysis of Changes in Life Cycle Characteristics of Suwon Citizens

김도훈·한연주·박민진·박영미·이지원·신예지



#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및 가족유형 다변화,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생애주기별로 복합적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기는 교육격차와 정신건강 문제가, 청년기는 취업난과 주거불안이, 중장년기는 일자리 불안정과 부양 부담이, 노년기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주요 과제로 대두
  - 수원시는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대도시이자 사회구조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세대 간 욕구 다양화와 인구감소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
- 이러한 문제는 연령대별 또는 소득계층별 단편적 지원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생애주기 전 단계를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생애주기별 정책은 개인이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과 욕구를 예측하고, 이를 연계적·통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
- 본 연구는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수원시민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생애단계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수원시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의 효과성과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 필요성 제기
  - 지난 15년간(2010~2024) 수원시의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생애주기별 시민 특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세대별 맞춤형 정책 방향 제시

## 주요 내용 및 결과

- 수원시의 생애주기 정책은 10여 년간 초기 기반 구축기(2010~2015), 정책 체계화·확대기(2015~2020), 통합적 추진기(2020~현재)의 3단계 정책 발전을 거쳐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함
  - 생애주기 정책 기반 구축기(2010~2015): 주로 보육·교육 등 기초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중심
    - 기존의 단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 관점으로 재편하는 등 생애주기 정책의 초기 단계로서 정책이 부서 단위로 추진됨

- 정책 체계화 및 확대기(2015~2020):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이 수립되며 참여형 정책 구조가 도입되었고, 아동정책 원탁토론회를 통해 아동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기반이 마련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서는 수원시 2030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10개 비전, 57개 목표)하에 주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권과 복지를 누리도록 하는 방향을 도시계획 및 복지정책에 반영
  - 이 시기의 수원시 생애주기 정책은 맞춤형 정책이 본격화되고 부서 간 협력 구조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
- 통합정책 추진기(2020~현재): 코로나19 팬데믹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연령 구분을 넘어선 생애주기 정책의 통합적 추진에 집중
  -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2025년 기준 총 62개의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개 부서가 합동으로 청년정책에 참여
  - 중장년층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노년층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되며 양적·질적 발전
  - 2024년에는 연령 구분을 넘는 통합 돌봄 정책인 '일상돌봄 서비스'를 도입하여 재가돌봄, 병원 동행, 식사 관리, 심리 지원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추진
  - 2025년에 제작된 '수신제가' 안내서는 임신·출산부터 노년까지 6단계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113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통합형 정책 안내서로, 수원시 생애주기 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을 명확히 담아냈다는 평가

□ 수원시의 생애주기별 재정 투입은 고령화 대응과 미래 세대 투자를 균형 있게 고려한 자원 배분과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수원시의 생애주기별 재정 투입 총액은 약 1조 1,565억 원으로, 노년층(65세 이상)에 대한 투입이 가장 크고, 영유아(0~7세), 아동·청소년(8~18세) 순으로 나타남. 청년과 중장년층에 대한 투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재정 투입은 현금성 지원이 69.9%, 비현금성 지원이 30.1%로, 노년층은 주로 기초연금, 효도수당 등 현금성 지원 중심, 아동·청소년은 돌봄센터 운영 등 비현금성 서비스 지원 중심
- 예산 구성은 국비가 5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다음 시비 31.6%, 도비 17.0% 순. 국비와 도비는 주로 현금성 지원에 치중된 반면, 시비는 비현금성 지원에 집중
- 실·국별 재정 투입 구조는 시민복지국이 노년층 중심으로 약 5,189억 원을 담당하며, 여성가족국은 영유아·아동·청소년 중심으로 약 4,799억 원 투입.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은 전 생애를 아우르거나 특정 계층 지원에 역할 수행

- 수원시는 고령화에 대응해 노년층 소득 안정과 건강 유지에 주력하면서도, 미래 세대인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돌봄 인프라 확대에 균형 있게 재정을 집행 중
- 수원시의 생애주기별 통합정책 추진 및 균형 있는 정책 예산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한계점이 존재함
  - 아동·청소년기 :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문제와 교육격차 심화,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 및 외국인 아동 등 새로운 교육·복지 수요 증가
  - 청년기 : 청년 인구는 고용 불안정, 주거비 부담, 결혼·출산 기피 등 복합적 생애위험에 직면. 수원시는 청년 월세 지원, 교통비 지원, 청년리 등 독자적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생애 전환기 지원의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 존재
  - 중장년기 :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 부담 계층으로, 고용불안정과 은퇴 이후 준비 부족이 문제화됨. 베이비부머 세대 특성에 맞춘 정책 부재
  - 노년기 :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며, 복지 수요도 지속 증가. 기초연금 등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자발적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지원 정책은 부족한 실정
- 최근 10년간의 수원시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수원시는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인구 정체·감소, 부양 부담 증가, 1인 가구 확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종합적 생애주기 대응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출생 감소와 초저출산 심화) 출생아가 10년간 46% 감소했고, 출산율은 전국보다 낮은 0.73명으로 이는 양육비·주거비 부담이 저출산의 핵심 원인
  - (인구 정체·감소 진입) '27년 123만 4천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40년 121만 6천 명으로 약 1만 8천 명 감소, 중위연령은 '24년 42.2세에서 '40년 49.4세로 16년간 7.2세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초고령사회로의 전환 가속) 50대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아 향후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 2040년 고령인구 비중은 24%p 증가 전망
  - (부양 부담 급증)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유소년+노년)는 '24년 33.7명에서 '40년 57.6명으로 1.7배 상승, 유소년(15세 미만) 100명당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24년 127명에서 '40년 340명으로 2.7배 증가하여 사회·재정 부담이 심화로 전망
  - (인구 이동 변화) 신도심은 순유입, 구도심은 노후화로 순유출 경향이 나타나며, 전입·전출 모두 화성·용인과의 교류가 가장 많고 최근 평택 비중 증가 추세
  - (1인 가구 급증) 전체의 36.2%, 10년간 11.4%p 증가하였으며, 고령 1인 가구는 고독사 위험, 청년 1인 가구는 고립·정신건강 문제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 수원시민의 생애주기별 요구는 '기본적 안전·돌봄'에서 '참여·자립·건강·연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각 세대가 직면한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통합적·맞춤형 접근이 필요
  - 아동·청소년기 : 교육격차 심화와 정신건강 악화 → 보호 중심 정책에서 '참여·학습·정서'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청년기 : 주거·일자리 불안이 핵심 문제 → 단기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 필요
  - 중장년기 : '끼인 세대'의 경제 및 가족 부양 부담 증가 → 일자리 안정·주거비·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필요
  - 노년기 : 돌봄·건강·고립 문제 증가 → '활동적 노화 + 디지털 접근성'이 새로운 정책수요

---

## 정책제언

---

- 수원시의 세대별 정책은 각 세대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연계·통합·포용을 지향하는 정책 추진 방식 제안
- 아동·청소년 세대 정책은 통합케어 시스템, 창의놀이 도시 조성, 디지털 안전교육 강화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주요 특성) 교육격차 심화,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 정신건강 문제 증가
  - (추진 방식) '수원형 아동·청소년 통합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 보건, 복지, 문화, 안전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행정동별 놀이 공간과 창의체험관 조성,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전용 프로그램과 기기 지원 확대
  - (목표) 아동·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권 보장, 교육격차 해소, 안전하고 창의적인 성장 환경 조성
- 청년 세대 정책은 라이프케어 플랫폼, 주거·일자리·생애설계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주요 특성) 주거·일자리 불안, 출산·경력·창업 역량 부족, 정신건강 문제
  - (추진 방식) '청년 라이프케어 통합 플랫폼' 구축(맞춤형 서비스 제공, 네트워킹 지원 시스템 도입), '청년 주거상향 프로그램'(공유주택, 단계별 주택 지원, 인센티브 제공),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실무교육, 창업 지원,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청년 생애설계' 지원(결혼·경제·경력·건강 설계 코칭, 커플 지원 패키지 시행), '중장년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중장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포함)
  - (목표) 주거 안정, 일자리 창출, 자기주도적 삶 설계

- 중장년 세대 정책은 경제력 확대, 건강·경력 전환, 재무·주거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주요 특성) 자녀·부모 돌봄 부담, 경력단절, 건강·경제적 압박
  - (추진 방식) ‘수원형 중장년 경력전환 패키지(Career 2.0)’(전직지원 컨설팅 + 신기술 재교육 (디지털·AI·경영), 기업-중장년 직무 매칭 프로그램), ‘중장년 부채·주거 부담 완화 정책’(중장년 대상 가계 재무코칭 서비스 제공, 주거 리모델링 지원)
  - (목표) 안정적 일자리, 건강한 노후, 사회참여 확대
- 노년 세대 정책은 인재 활용, 디지털 포용, 건강 유지, 사회참여 증진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주요 특성) 고령화 가속, 건강·경제·사회적 고립
  - (추진 방식) ‘시니어 인재 활용 프로젝트’(전문가 네트워크, 사회적 기업 지원), ‘어르신 디지털 포용’ 사업(디지털 튜터 양성,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기타 건강·운동·영양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
  - (목표) 건강한 노후, 사회적 연결, 디지털 격차 해소

주제어: 수원시, 인구구조, 세대, 생애주기, 통합돌봄, 삶의 질

# 차례

---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4

---

## 제2장 수원시 생애주기별 정책 및 예산구조

---

제1절 수원시 시기별 정책 변화 .....	9
제2절 수원시 생애주기별 재정 투입 현황 .....	17
제3절 시사점 .....	20

---

## 제3장 수원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정책 요구 분석

---

제1절 수원시 인구·사회학적 특성 .....	25
제2절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이슈 .....	35
제3절 세대별 정책 요구 분석 .....	40

---

## 제4장 정책 제안

---

제1절 수원시민 생애주기별 정책 방향 .....	49
제2절 수원시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제안 .....	51

## 표차례

표 2-1   수원시 시기별 정책 변화 .....	12
표 2-2   수원시 생애주기 정책별 재정투입 현황 .....	18
표 2-3   생애주기 예산 매칭 현황 .....	18
표 2-4   수원시 실국별 생애주기 정책 재정투입 현황 .....	19
표 2-5   수원시 생애주기별 정책의 구조적 한계 .....	22
표 3-1   수원시 전입 전과 후의 거주지 .....	32
표 3-2   청년층 정책 요구사항 .....	42
표 3-3   중년층 정책 요구사항 .....	43
표 3-4   장년층 정책 요구사항 .....	44
표 3-5   노년층 정책 요구사항 .....	45

# 그림차례

그림 3-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	25
그림 3-2   수원시 인구구조 변화 .....	27
그림 3-3   수원시 장래인구 추계 .....	28
그림 3-4   수원시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	29
그림 3-5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 및 저출산 원인 .....	30
그림 3-6   수원시 인구이동 .....	31
그림 3-7   수원시 성별 및 거처 유형별 1인 가구 .....	32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경제·문화 전반의 환경 변화 속에서 생애주기별로 상이한 특성과 도전 과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 생애주기별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접근 필요
  - 아동·청소년기에는 교육격차 심화와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기에는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 심각하고, 중장년기에는 일자리 불안정과 자녀 교육비 부담, 부모 부양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노년기에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
- 과거의 연령대별 또는 소득계층별 단편적 지원 방식으로는 개인과 가정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으며,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정책 접근의 필요성 증가
  - 개인은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각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연속적인 생애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 생애주기별 정책은 개인이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과 욕구를 예측하고, 이를 연계적·통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
- 점차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세대 간 욕구가 크게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 수요가 더욱 분화
  - 수원시는 경기도 내 최대 인구 규모를 가진 도시로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이며,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복합 도시 특성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질적 발전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

- 수원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생애주기 정책들이 실제로 각 생애주기의 특성과 문제점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 필요
  - 수원시는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담은 '수신제가' 안내서를 통해 113개의 지원사업 소개
  - 현행 정책들이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

##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대가 직면한 고유한 문제점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최근 15년간(2010년~2024년) 수원시의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통계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생애주기별 특성 변화 추이와 패턴 파악
  - 둘째, 현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정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객관적으로 평가
  - 셋째, 생애주기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각 세대의 정책 수요를 도출하고,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와 개선 방향 제시
  - 넷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의 특성에 맞는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생애주기별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

---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 1. 연구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정책 검토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타 지자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로 한정
  - 2010년대 초반부터 2025년 현재까지, 수원시 생애주기별 정책이 형성·확대·통합된 전 과정을 대상으로 분석함
- 생애주기별 구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령대별 분류를 기반으로 하되, 수원시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

- 아동·청소년기(0세부터 18세까지) :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기초 교육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서 교육, 보육, 건강, 안전 등이 주요 정책 영역
- 청년기(19세부터 34세까지) : 고등교육 이수, 취업 준비, 결혼, 출산 등 인생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로서 교육, 일자리, 주거, 결혼·출산 지원 등이 핵심 정책
- 중장년기(35세부터 64세) : 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의 이중 부담을 지는 시기로서, 일자리 안정성, 사회보장, 평생교육 등이 주요 정책 영역  
-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1차 베이비부머 세대와 1964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특성을 함께 고려
- 노년기(65세 이상) :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건강한 노후 생활, 사회참여 등이 핵심 정책 영역

## 2.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고, 국내외 선행연구와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정량적 분석은 수원시 통계, 통계청 국가통계, 공공데이터포털, 경기도 및 수원시 정책자료 등을 활용하여 인구구조, 경제활동,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 정성적 분석은 수원시의 정책 문서, 보도자료,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한계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 본 연구의 흐름은 5단계를 통해 수행
  - (1단계) 문헌조사와 통계자료 수집을 통해 기초 현황 파악
  - (2단계) 생애주기별 특성 변화를 시계열 분석을 통해 검토
  - (3단계) 현행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 평가
  - (4단계) 생애주기별 문제점과 정책 수요 분석
  - (5단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방안 제시



## 제2장

# 수원시 생애주기별 정책 및 예산구조

제1절 수원시 시기별 정책 변화

제2절 수원시 생애주기별 재정 투입 현황

제3절 시사점



## 제2장 수원시 생애주기별 정책 및 예산구조

### 제1절 수원시 시기별 정책 변화

#### 1. 개요

- 수원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생애주기별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각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 및 발전시킴
  - 최근에는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정리한 「수신제가」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하고, 일상돌봄 서비스 등 통합형 생애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함
- 그간 수원시가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정책의 주요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시기별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생애주기 중심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생애주기 정책 발전 흐름을 ①기반 구축기(2010~2015), ②체계화·확대기(2015~2020), ③통합 추진기(2020~현재) 세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
  - 수원시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타 지자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비교·분석
  -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4개 생애단계를 중심으로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 한계를 검토

#### 2. 수원시 생애주기 정책발전 흐름

##### 1) 생애주기 정책 기반 구축기(2010~2015)

- 수원시의 생애주기별 정책은 2010년부터 체계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함
  - 생애주기 정책의 기반 구축기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에 따른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점
  - 당시 수원시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단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 관점으로 재편
    -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도입 등 기초적인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

- 청년 분야에서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
- 중장년 분야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일자리 재교육 과정 마련
- 노년 분야에서는 노인복지관 확충과 기본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시작

□ 이 시기의 생애주기 정책은 생애주기별 접근이 도입되었으나 체계성이 부족했으며, 정책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이 시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관 등 기초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지원도 추진하기 시작
- 전반적으로 해당 부서별 양적 확대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며, 질적인 서비스 개선이나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세대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

## 2) 생애주기 정책 체계화 및 확대기(2015~2020)

□ 수원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을 표방하면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역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는 조례를 제정(2017.11.17. 조례 제3738호)

-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는 수원시 2030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10개 비전, 57개 목표)를 수원시 전략에 반영하도록 규정

- 빈곤·복지, 건강, 교육, 일자리, 도시·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생애주기에 포함

□ 수원시의 생애주기별 정책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고 확대된 시기로 각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며, 부서 간 협력체계도 강화

- 시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권과 복지를 누리도록 하는 방향을 도시계획 및 복지정책에 반영
  - 고령친화도시 전략(노년기 생애주기 정책), 인구정책·청년도시·인구절벽 대응 전략(전 생애주기), 지속가능발전·스마트도시·도시재생 계획(전 생애주기 및 거버넌스 구축) 등
  - 고령친화도시 전략은 나이가 들어도 참여·소통·여가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보건, 돌봄, 이동성, 주거, 사회참여, 안전을 통합적으로 개선
  -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 주거, 돌봄, 교육 등 연관 분야를 통합적으로 설계한 인구정책 제시<sup>1)</sup>
    - 출산·양육기 지원(영유아·아동기), 교육 및 진로·취업 지원(청소년·청년기), 일·가정 양립, 주거 안정(청년·중장년기), 안정적 노후·돌봄(노년기)

1) 국토교통부. (2017).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 3대 핵심영역의 정책과제 제시”. 보도자료(2018.10.24.)

- 이 시기에는 각 세대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본격화됨
  - 단일 사안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세대 간 특성과 필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강화되었고,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짐
    - 아동정책 수립 과정에서 원탁토론회를 통해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 수렴, 노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년 일자리 정책이 확대되는 등 생애 단계별 수요를 반영한 사업들이 추진

### 3) 통합적 정책 추진기(2020~현재)

- 코로나19 팬데믹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생애주기별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로서 2025년 '수신제가' 안내서 제작으로 대표되는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
  - 아동·청소년 분야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인 아동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아동정책 원탁토론회를 통해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정책 추진 방식 도입<sup>2)</sup>
  - 청년 분야에서는 기존의 일자리 중심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총 62개의 청년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
    -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취업준비생 교통비 지원 '청카드' 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이며, 청년 월세 지원은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시작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
  - 중장년 분야는 사회경제적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장년층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
  - 노년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 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추진<sup>3)</sup>
  - 수원시는 2025년 '수신제가' 안내서를 시민에게 배포하여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를 제공
    - '수신제가'란 '수원시민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가족 지원 안내서'의 약자로서 시민 개개인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지원한다는 의미
      - 임신·출산, 영유아·아동,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어르신, 이주민 등 6단계로 분류하여 113개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안내
  - 대외적으로 수신제가는 수원시 생애주기별 정책의 철학과 방향이 잘 반영된 안내서로 평가

2) 경기청소년신문 (2024). 수원시, '2024 아동정책 원탁토론회' 참여 아동 모집.

3) 복지헬로 (2024). 꿈과 열정엔 나이가 없습니다. 수원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일상돌봄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연령별 획일적인 서비스를 극복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통합적 돌봄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시기
  - 2024년 시작된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병원 동행, 식사 관리, 심리 지원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

표 2-1 | 수원시 시기별 정책 변화

구분	주요 정책	특징
생애주기 정책 기반 구축기 (2010~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육 인프라 구축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li> <li>• 대학생 장학금, 청년 일자리 기초사업</li> <li>• 중장년 평생교육·재교육 프로그램</li> <li>•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사업 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 정책 시작 단계</li> <li>• 부서별 분산 추진</li> <li>• 양적 중심 접근</li> </ul>
정책 체계화 및 확대기 (2015~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복지, 건강, 교육, 일자리, 도시·환경 등을 포괄하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li> <li>• 주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권과 복지를 누리도록 하는 방향을 도시계획·복지정책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 본격화</li> <li>• 세대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li> </ul>
통합적 정책 추진기 (2020~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원탁토론회</li> <li>• 청년지원 정책 62개 추진</li> <li>• 노인일자리 4개 유형 세분화</li> <li>• '수신제가' 안내서 제작(113개 사업)</li> <li>•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 통합형 정책 정착</li> <li>• 정책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li> </ul>

### 3. 최근 수원시 세대별 정책 추진 현황

#### 1)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 수원시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추진 중
  - 수원시는 유니세프에서 2017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지속적으로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 중
    - 주요 정책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아동정책 원탁토론회, 아동돌봄 서비스 등 추진 중
  - 2024년 개최된 아동정책 원탁토론회는 '빛나는 아이들이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수원'을 주제로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6개 분야에서 아동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형 정책 추진 방식 채택

- 아동정책 원탁토론회에서 도출된 정책제언은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학교 주변 안전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가족 소통 앱 개발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
- 교육 분야에서는 물리적 교육 환경 개선 중심의 아동정책에서 나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정책으로 확대
  -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 영역을 확대
- 보육 분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등 다양한 계층의 아동들을 포괄하는 정책 추진
- 최근 중소기업장 초등 새내기 10시 출근제와 같은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아동의 생활리듬과 가족의 일과 가정생활 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 시도 중

## 2) 청년정책 현황

- 수원시의 청년정책은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2025년 기준 5개 분야에서 총 76개의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개 부서가 합동으로 청년정책에 참여
-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비·지방비 기반의 다양한 임차료 지원사업과 보호 종료 청년 대상 맞춤형 주거 대책이 시행 중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국비)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청년 월세 지원(수원시 자체)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 1인 가구 청년에게 월 10만 원씩 5개월, 최대 50만 원(생애 1회)을 지원하는 수원시 독자 사업임
  - 자립준비청년 세어하우스(CON)는 보호 종료(예정) 청년(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대상)에게 임대료·가전·가구·멘토링 등 종합 지원 사업
  -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LH 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 시중 40~50% 수준으로 임대
  - 청년, 신호부부 주택 5,000호 공급 정책은 2022년 당수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 당수2 공공주택지구와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까지 총 5,638호를 공급할 예정
  - 수원 전입 청년 단기 숙소 '새빛호스텔' 정책은 취업 및 학업을 위해 수원으로 전입하는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수원유스호스텔 객실 10개소를 3개월 내 1일 4천원에 제공

- 일자리 분야에서는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한 면접 정장 대여, 구직단념청년 역량회복 프로그램, 농업 분야 청년 인력 정착 지원 뿐만아니라 청년 창업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지역 기반 창업 활동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
  - 취업준비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청나래)는 19~39세 청년에게 정장을 무료 대여(4일 / 연 3회)하는 사업
  - 청년 행정체험 정책은 미취업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수원시청, 사업소, 구청 등에서 주 5일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
  -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고졸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미국 소재기업에 청년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컨설팅, 취업연계, 비자발급비(1인 250만원) 지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정책은 수원소재대학과 협력하여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바이오헬스산업 인력양성 지원 등 수행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18~40세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에게 정착지원금과 교육·컨설팅을 제공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간 미취업 청년에게 상담·진로탐색·취업역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수당·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
  - 아시아 청년 포럼은 (예비)청년창업가 20명을 선발해 해외 탐방과 창업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으로, 2025년에는 대만 탐방 프로그램 운영
  - 수원청년 마을사랑방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팀에 작업 공간을 제공하며, 2025년에는 새빛청년존 2호 상가 내 8개 팀 입주
- 교육 분야에서는 청년의 진로 탐색 및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구직단념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주요 시험 및 학업지원 정책은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지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제공
  - 취업 및 창업지원 정책은 1:1 진로설계, 자기소개서 멘토링, 모의면접,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등 제공
-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의 기본 권익 보호와 노동권 강화,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시행 중
  - 청년기본소득·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연계사업도 병행 운영되며, 지역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 정책 추진 중
    - 일상돌봄서비스(가족돌봄청년 9~39세 대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정착수당 제공

- 다양한 청년권리 보호 캠페인 및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의 권익 인식 제고와 정책 참여도를 높이는 활동을 지속
  - 청청봉사단 ‘유니버스’, 수원에 다‘잇’다, 공유공간 ‘청청스퀘어’, 슬기로운 공유생활, 나홀로 청년 문화치유 지원사업 등
- 2025년 9월부터 ‘생성형 AI 기반 고위험 고립위기 청(소)년 사전예방시스템’을 운영하여 고립 및 은둔 위기 청(소)년을 탐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있음
- 수원시는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오프라인 청년공간(청년바람지대, 청누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국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 등을 운영 중

### 3) 중장년 정책 현황

- 수원시의 중장년 정책은 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평생교육,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
  -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주체 발굴·성장지원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창업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운영,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 지원 등
    - 수원시에는 사회적 기업 90개(인증 53개, 예비 37개), 협동조합 385개, 마을기업 9개, 자활기업 12개 등 총 496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 중<sup>4)</sup>
  - 일상돌봄 서비스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병원 동행, 식사 관리, 심리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부담금 면제

### 4) 노년 정책 현황

- 수원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바탕으로 2023년 고령친화도시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4대 목표와 8대 영역에서 4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복지서비스, 사회참여, 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체계적인 노인 정책 추진
- 수원시의 노년 정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추진 중
  - 2025년 기준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 4,750명, 노인역량활용사업 1,740명, 공동체사업단

4) 수원도시재단. (2022).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609명, 취업지원 230명 등 총 7,329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sup>5)</sup>

-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노케어, 학교급식, 공공시설 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월 29만 원 지원

-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60세)을 대상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월 76.1만 원을 지원

-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지원 사업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규모 매장 운영, 경비원, 청소원, 관리사무직 등의 일자리를 제공

□ 수원시는 14개 수행기관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니어클럽이 1,421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담당하고, 대한노인회 각 구지회와 노인복지관들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

5) 수원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24년 12월 보도자료

## 제2절 수원시 생애주기별 재정 투입 현황

### 1. 생애주기별 재정투입 규모 및 특징

- 수원시의 생애주기별 재정투입 총액은 1조 1,565억 원으로, 전 생애를 아우르는 다양한 복지·돌봄·지원 정책을 다각적으로 운영
  - 2025년 1차 추경 기준 생애주기별 재정 투입 총액 1조 1,565억 원(자체사업+보조사업) 투입
    - 노년층은 5,313억 원으로 전체의 45.9% 수준을 차지하며, 기초연금, 효도수당, 건강검진비 등 사회보장 성격의 현금성 지원사업이 다수를 이루어 '소득 안정·건강 유지' 중심의 지원 구조 형식을 반영
    - 영유아는 3,738억 원 투입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하며 보육, 돌봄, 가정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확충에 중점
    - 아동·청소년은 2,123억 원 투입으로 돌봄센터 운영, 사례관리<sup>6)</sup>, 보호시설 및 쉼터 지원 등 비현금성 서비스 중심 정책이 추진 중
    - 청년·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나, 고용·생활안정·건강 등의 다양한 정책을 선택적으로 제공
  - 생애주기별로는 노년층(65세 이상)에 대한 재정 투입이 가장 크며, 이어 영유아(0~7세), 아동·청소년(8~18세) 순으로 투입 규모가 크게 나타남
    - 수원시가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면서도 미래 세대 투자에도 균형을 두고 있음을 시사
- 전체 재정 투입 중 현금성 지원 비중은 69.9%, 비현금성 지원 비중은 30.1%로서 행정 효율을 위한 현금 지원 방식이 큼
  - 현금성 지원은 노년층(51.1%)이 가장 크고, 비현금성 지원은 아동·청소년층(37.6%)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노년은 소득보전 중심, 아동·청소년은 보호·돌봄 중심이라는 정책 구조 반영
    - 노년층의 현금성 지원이 큰 이유는 기초연금 등 국가단위 제도의 지방 집행 영향이 크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현금성 사업이 구조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영유아에도 상당한 규모(35.9%)가 투입되어 보육료, 양육수당 등 가정단위 지원 성격이 큼

6) 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경제, 건강, 심리 등)을 겪는 개인 및 가족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의미함

- 비현금성 지원은 돌봄센터, 사례관리, 보호시설 운영 등 서비스 제공형 사업이 대부분으로 아동·청소년에서 비중이 크고(37.6%), 노년층 역시 33.9% 수준으로 의료, 복지, 돌봄 서비스 기반 프로그램이 지속적 확대

표 2-2 | 수원시 생애주기 정책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영유아(0-7세)	아동청소년(8-18세)	청년(19-34세)	중장년(35-64세)	노년(65세 이상)	
합계	1,156,521	373,754	212,325	32,133	7,007	531,302	
비중	100.0	32.3	18.4	2.8	0.6	45.9	
현금성	소계	808,781	290,129	81,445	23,830	40	413,336
	비중	100.0	35.9	10.1	2.9	0.0	51.1
비현금성	소계	347,741	83,625	130,880	8,303	6,967	117,966
	비중	100.0	24.0	37.6	2.4	2.0	33.9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 2. 재원별 예산 구성

- 생애주기별 사업의 재원 구성은 국비가 5,907억 원(51.5%)으로 가장 크며, 이후 시비 3,624억 원(31.6%), 도비 1,947억 원(17.0%) 순
  - 국비와 도비는 현금성 지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 단위 사회보장제도(기초연금·보육지원 등)의 영향으로 판단됨
  - 시비는 비현금성 지원 비중이 56.9%로 높아 수원시 고유의 복지·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 수원시의 재원 투입 방식은 중앙정부 재원으로 소득보전형 복지지출을 집행하고, 시 자체 재원으로 돌봄, 보호, 사례관리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중점
  - 국비, 도비는 현금성, 시비는 비현금성이라는 재원 구조 차이가 생애주기별·사업별 정책 성격에 영향을 미침

표 2-3 | 생애주기 예산 매칭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1,147,713	590,701	194,656	362,356	
비중	100.0	51.5	17.0	31.6	
현금성	소계	808,781	501,070	138,224	169,487
	비중	100.0	62.0	17.1	21.0
비현금성	소계	338,942	89,631	56,433	192,878
	비중	100.0	26.4	16.6	56.9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주 : 생애주기 예산 매칭액 대비 수원시 생애주기 정책별 재정투입 예산이 8,808백만 원 많은 이유는 사업 대상이 일부 중복되기 때문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지원, 1인 가구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기초정신복지센터 운영 지원, 청년 및 노인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은 두 개 이상의 생애주기에 포함되어 중복 계상함)

### 3. 실·국별 재정투입 구조

- 수원시의 여성가족국은 영유아·아동 중심, 시민복지국은 노년 중심의 정책부서로 명확히 구분되며, 나머지 실국은 특정 생애 계층에 특화되기보다는 기능 및 사업 성격에 따라 제한적인 역할 수행
  - 시민복지국은 총 5,189억 원 투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년층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약 5,126억 원) 사실상 ‘노인복지 중심’ 재정 투입
  - 여성가족국은 총 4,799억 원, 그 중 대부분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약 4,762억)에 집중되어 있어 보육, 아동·청소년 돌봄, 아동복지 인프라 운영 등 ‘미래 세대 투자 중심’ 재정 투입
- 이외에도, 보건소는 전 생애 건강 정책 수행, 특히 노년(183억)과 영유아·청소년 건강관리 예산 비중 높고, 공원녹지사업소, 환경국, 안전교통국은 특정 생애주기보다는 생활환경 전반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며, 농업기술센터는 중장년층 및 노년층 농업 관련 프로그램·지원 중심의 재정 편성

표 2-4 | 수원시 실국별 생애주기 정책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영유아(0-7세)	아동·청소년(8-18세)	청년(19-34세)	중장년(35-64세)	노년(65세 이상)
합계	1,156,521	373,754	212,325	32,133	7,007	531,302
경제정책국	4,179		300	2,714	1,165	
시민복지국	518,872	144	94	3,117	2,947	512,570
여성가족국	479,879	357,437	118,773	2,371	1,218	80
문화청년체육국	24,550		2,865	21,685		
안전교통국	2,009		1,705			304
환경국	62		62			
도시개발국	301			301		
시민협력교육국	12,777		12,747		30	
농업기술센터	61,494	1,152	60,255	87		
공원녹지사업소	476		342	50	84	
보건소	51,922	15,021	15,182	1,809	1,562	18,348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 제3절 시사점

### 1. 현행 정책의 성과

- 지난 15년간 수원시의 생애주기별 정책은 대상 범위와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보다 정교한 시민 맞춤형 지원체계로 발전
  - ‘수신제가’는 113개 지원사업을 체계화하였으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연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
  - 아동·청소년 분야는 단순 보호 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아동정책 원탁토론회와 같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 수립 방식으로 자리 잡음
    - 아동원탁토론회는 아동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음
  - 청년 분야는 기존의 일자리 중심 지원에서 주거·교육·문화·권리 등 삶의 전 영역으로 정책 범위 확대
    - 2025년 기준 5개 분야 총 76개 사업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였으며, ‘청년 월세 지원’과 같은 전국적 주목을 받은 혁신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
  - 중장년 분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생교육,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 노년 분야는 단순한 소득 보전형 일자리에서 벗어나 역할 기반·사회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다양화
    - 2025년 기준 7,329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신중년·노인일자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고령층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확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
  - 수원시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생애주기 통합형 돌봄 체계를 도입하여 세대 간 단절된 개별 서비스가 아닌, 생애 전환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속적 지원 구조를 마련
    - 통합적 접근은 세대별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고, 세대 간 상이한 정책요구를 조정하여 보다 균형 있는 지원 가능

### 2. 현행 정책의 한계

- 아동·청소년 정책은 복지 중심, 아동·청소년의 요구를 상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부족 등 한계
  - 아동정책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보호와 복지 중심의 접근으로 아동의 자율성과 참여권 제한. 둘째, 캠페인 형식의 수원시의 원탁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아동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 부족. 셋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

- 청소년 정책의 경우 2023년 ‘수원시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이 현재까지 미흡한 상황<sup>7)</sup>
  - 특히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 강화와 정주 의식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필요

□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의 다양성, 연속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발생<sup>8)</sup>

- 첫째, 청년 정책은 주로 학업중이거나 미취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 집중
  -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 성별, 지역(출신 지역) 등 청년 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정책 대상 선정 필요
- 둘째,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정책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가 낮은 문제 존재
  - 청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 셋째, 청년정책의 성과 측정과 피드백 체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청년의 정책 참여와 의견 수렴 과정 또한 상대적으로 제한적
- 넷째, 청년 현실과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응하는 전략 마련 부족
  - 수원시 주력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방안 필요

□ 중장년 정책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다음과 같은 한계 발생

- 첫째, 정책 대상에 대한 기초 연구와 현황 파악 미흡
-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부재
  -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은 기존 노인층과는 다른 교육수준, 경제적 여건, 여가수요를 가지고 있어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sup>9)</sup>, 특히 은퇴 준비, 재취업, 건강 관리, 여가·문화 활동,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정책 개발 시급
- 셋째, 중장년층의 다양한 생애 전환 과정(자녀 독립, 부모 돌봄, 은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

7) 2023년 수원시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수원시청소년재단, (<https://www.syf.or.kr/web/board.do?menuIdx=333&bbIdx=64508>)

8) 박민진(2025), 수원 청년의 삶과 청년정책의 방향성, 청년포럼 발표 자료(2025.08.30.)

9)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973>

-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주로 일반적인 성인 대상 정책이나 예비 노인층을 위한 정책 수준으로 청년이나 노인에 비해 중장년층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

□ 노인 정책은 노인복지관 운영, 장기요양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평생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나 노인의 자발적 사회참여와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정책 그리고 경제활동 및 세대 간 통합에 관한 정책 미흡

○ 노인 정책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돌봄과 복지 중심의 접근으로 노인의 능동적 사회참여 지원 부족. 둘째, 건강한 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접근 미흡. 셋째,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이 제한적

- 노인층 내부의 다양성(연령, 건강상태, 경제수준, 거주지역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부족

-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이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 부족

표 2-5 | 수원시 생애주기별 정책의 구조적 한계

구분	구조적 한계
생애주기 모델의 고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정책은 영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이라는 연속적·정형화된 경로를 전제로 설계 → 현재는 만혼·비혼, 비정규 고용, 재취업, 돌봄의 연령 역전 등으로 생애 경로가 비선형화되고 있음</li> </ul>
부서 중심의 분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이 행정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어, 한 개인이 겪는 복합적인 생애 문제(예: 청년의 주거+고립+정신건강)는 통합적 접근이 어려움</li> </ul>
획일적 대상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노인' 등으로 연령만 기준 삼는 정책은 개별 삶의 맥락(가구 형태, 건강, 소득, 교육수준 등)을 반영하지 못함</li> </ul>
공급자 중심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정책이 수요자(시민)의 참여나 피드백 없이 정부 또는 전문가 중심으로 설계됨 → 정책 효과성 낮음</li> </ul>
사각지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구 등 비전형적인 삶의 형태는 정책 범주 밖에 놓임</li> </ul>
정책 지속가능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는 반영되었지만, 장기적 재정 부담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부족</li> </ul>

## 제3장

# 수원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정책 요구 분석

제1절 수원시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이슈

제3절 세대별 정책 요구 분석



# 제3장 수원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정책 요구 분석

## 제1절 수원시 인구·사회학적 특성

### 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 수원시는 1990년대 후반 급격한 성장기를 지나 2024년 현재 인구 정체·감소 단계에 진입
  - 수원시 총인구는 1994년 약 73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약 120만 명 수준에 도달
- 수원시의 인구성장률은 1998년 6.94%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1990년대 후반 토지개발과 도시확장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 → 2000년대 이후 도시 규모가 포화상태로 총인구 증가 둔화 → 2010년대 이후 약 0%대의 낮은 인구성장률 → 2024년 인구성장률 감소
  - 수원시의 인구성장률 감소 원인은 초저출산, 신규 주택공급 둔화, 인접 도시의 개발 확대에 의한 인구 분산
- 수원시는 인구성장률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 변화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 필요
  - 인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에는 소비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위축, 지방세 수입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청년층 주거안정 및 일자리 창출, 고령인구 기반 복지체계 구축 등 대응책 마련 필요

그림 3-1 |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sup>1)</sup>

(단위 : 명,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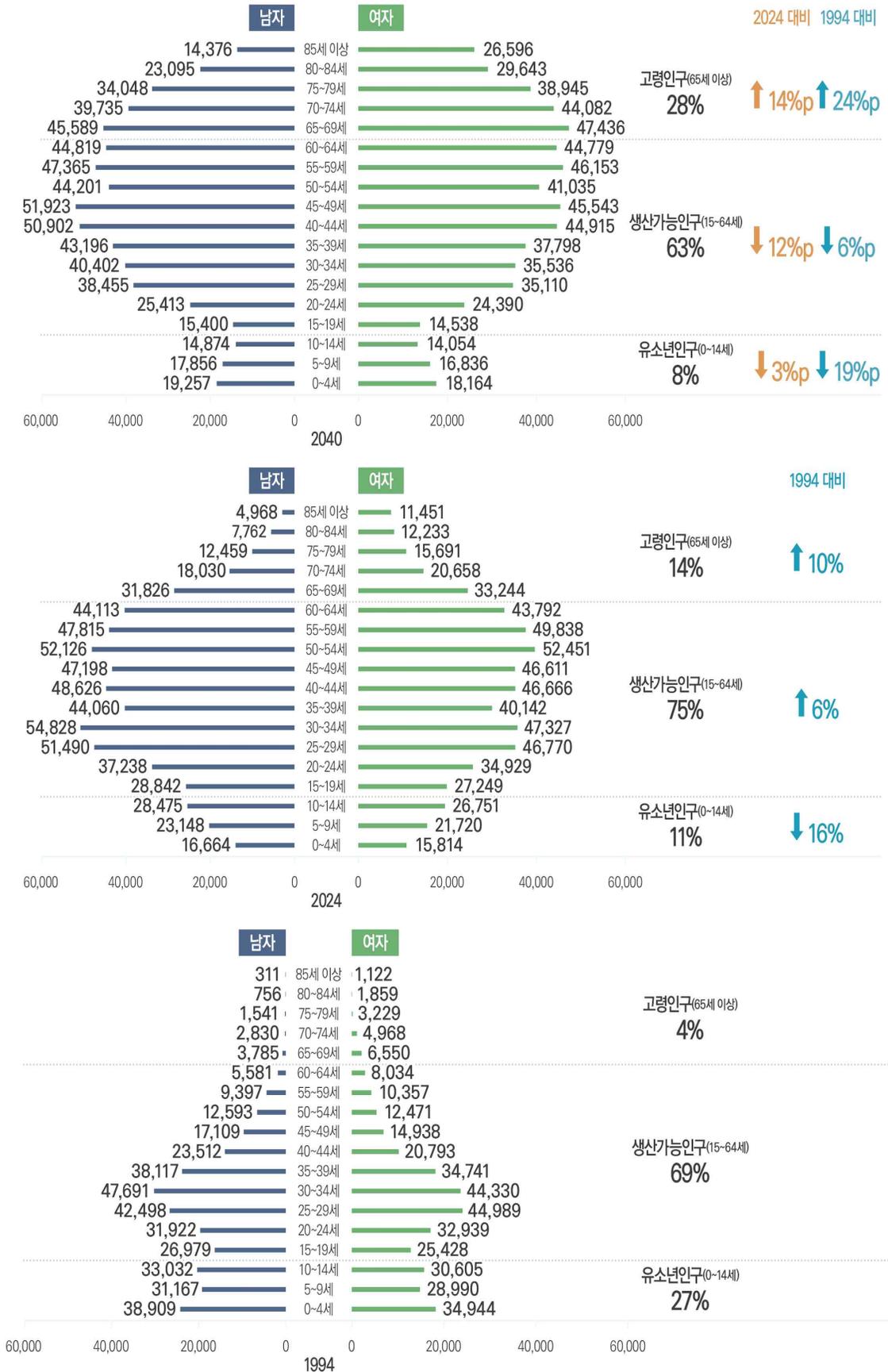
<sup>1)</sup> {(해당연도 주민등록인구 - 전년도 주민등록인구)/전년도 주민등록인구}\*100

## 2. 인구구조 변화 전망

- 수원시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전환 중이며, 이에 따라 부양부담 확대, 생산가능인구 축소, 복지수요 급증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 1994년과 비교했을 때 2024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16%p 감소한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6%p, 고령인구는 10%p 증가함
    - 1990~2000년대의 높은 출산율 세대가 생산가능연령층으로 진입한 영향과 베이비부머 세대가 아직 고령층으로 완전히 이동하지 않은 인구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
  - 2040년에는 1994년 대비 유소년 인구가 19%p, 생산가능인구가 6%p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24%p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40년 수원시는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와 고령층 집중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에 해당
    - 장기적으로는 노동 공급, 세수, 돌봄수요,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수원시 초고령화의 핵심 원인은 동일 세대(코호트)의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연령 이동에 따른 결과이며, 이는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고령화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2024년 수원시 50~54세 인구는 10만 4천 명, 55~59세 인구는 9만 9천 명으로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7%로 가장 높아 2030년대 중반부터 60~70대로 이동하면서 고령층의 폭발적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임
  - 반면 10대 이하 및 20대 초반 연령층은 1990년대 출생 코호트 대비 규모가 작아, 자연 인구재생산만으로는 고령화 속도를 상쇄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실정
- 수원시의 고령화 심화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시급
  - 수원시의 고령화가 가중될 경우 노동력 부족, 세수감소, 복지수요 급증,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비생산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발생이 예상됨
    - 유소년·고령층을 합한 비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총부양비(15~64세 1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 수)는 현재보다 크게 상승 전망
    - 특히 50대 코호트가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2030년대에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장기요양, 의료비 등 공적 재정지출과 가족돌봄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시기
  - 수원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유입 유도, 정주여건 개선으로 생산가능인구 유지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대응 전략 필요

그림 3-2 | 수원시 인구구조 변화

(단위 : 명)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도별·연령별 인구현황

### 3. 장래인구추계

- 수원시는 2027년 약 123만 4천 명을 정점으로 한 후 완만한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하면서, 2040년에는 중위연령 49.4세의 전형적인 저성장·고령 도시 구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총인구는 2027년 123만 4천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40년 121만 6천 명으로 약 1만 8천 명 감소하여, 완만한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 고령화 양상이 나타남
    - 수원시는 2027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상회하는 인구 자연감소 국면에 진입 전망
  - 수원시 중위연령은 2024년 42.2세에서 2040년 49.4세로 16년간 7.2세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40년에는 중위연령이 49.4세에 도달하여, 수원시민의 절반 이상이 50세 전후에 분포
- 출생아 수는 203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진입과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30년대 이후 자연감소 폭이 점차 확대 예상
  - 출생아 수는 '36년 7천9백 명을 정점으로 감소, 사망자 수는 '24년 5천9백 명에서 '40년 약 1만명으로 증가 전망
    - 수원시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의 교차점은 2033년으로 예상
- 수원시의 장래인구 추계 결과 청년·중장년·고령층·이민 인구를 포괄하는 인구전략 수립이 요구됨
  - 성장 산업 육성으로 청년층 유입, 30~50대 중장년층의 재정착을 위한 정주 인프라 강화, 외국인 유학생 및 이민자 유입 정책 활성화와 지역 정착 유도 등 인구 대책 필요

그림 3-3 | 수원시 장래인구 추계

(단위 : 명, 세)



자료 : 경기통계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

인구성장률 =  $\ln(\frac{P_t}{P_0})/T \times 100$  (\*  $P_0$  = 기준연도 인구,  $P_t$  = t년도 인구, T=비교기간)

중위연령 =  $L + [(\frac{N}{2} - F)/f] \times w$  (\* L= 중위연령이 속한 구간의 하한 나이, N=전체 인구수, F=중위연령 구간 이전까지의 누적 인구수, w= 구간 너비)

## 4.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저출산으로 유소년 인구가 줄어들면서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진입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상승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
  - 100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인구(유소년+노년)는 '24년 33.7명에서 '40년 57.6명으로 1.7배 상승
    - '40년 수원시 총부양비는 57.6명으로 증가분의 대부분이 노년부양비 상승에서 비롯되는 고령의존형 부양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
    - '4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현재보다 약 70% 높은 부양부담 예상
  - 유소년(15세 미만) 100명당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24년 127명에서 '40년 340명으로 2.7배 증가 전망
    - '40년 노령화지수는 유소년 100명당 고령자 340명 수준으로 향후 교육·보육보다 노인복지·의료·돌봄 지출 비중이 구조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
- 부양비와 노령화지수의 급등은 경제활동 인구 1인당 부양 부담을 크게 높여 노동력 부족·세수 정체·복지 재정 압박이 동시에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필요
  -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노노케어 등), 세대통합형 돌봄 인프라 확충(어린이-노인 공용 공간 등) 등

그림 3-4 | 수원시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단위 : 명,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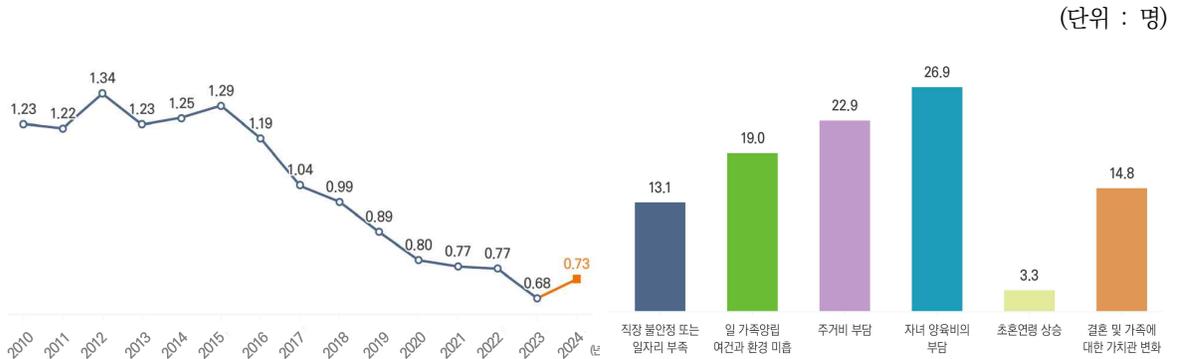
자료 :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

- 1) 총 부양비(유소년+노년) :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0~14세) 및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 2) 유소년부양비 : 생산가능연령(15~64세)인구에 대한 유소년(0~14세)인구
- 3) 노년부양비 : 생산가능연령(15~64세)인구에 대한 노령(65세 이상)인구
- 4) 노령화지수 : 유소년 인구(15세 미만) 100명당 고령 인구수(65세 이상)를 의미하며, 지수가 높을수록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

## 5. 합계출산율 및 저출산 원인

- 수원시 합계출산율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후 2024년 반등세
  - 2024년 수원시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1.23~1.34명 사이의 출산율을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최저 합계출산율 이후 반등함
-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 양육비 부담 및 주거비 부담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 2024년 기준 수원시 저출산 원인은 1순위 「자녀 양육비 부담」, 2순위 「주거비 부담(비싼 주택가격 등)」 순
-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 하락 시 학교, 보육시설, 교육 서비스의 불균형에 따른 과잉투자 우려, 출산율 차이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시는 주거·보육 인프라·노동시장의 안정성이 결합된 주거·육아·일자리 통합 정책 확대 필요

그림 3-5 |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 및 저출산 원인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 사망), 수원시 사회조사(2024)

## 6. 인구이동

- 수원시 순이동은 지역 내 또는 인접 도시의 개발 영향에 따라 증감 반복 추세
  - 수원시의 순이동(전입-전출)은 '12년 2만 4천 명으로 순유입 정점에 이룸, 이후 순유입 규모가 감소하여 '20년 순유출(1만 1천 명) 도달, 이후 증가하여 '22년 순유입(7천 명) 회복, '24년 다시 순유출(5천 명)로 전환
    - 14년간 평균 통계를 보면 평균 총 전입 181,105명, 평균 총 전출 178,469명으로 평균 순이동 2,636명 증가
  - 신도시(광교·호매실) 개발효과, 인접 지역의 주거 매력도 향상 등은 전입 및 전출 증감에 영향

그림 3-6 | 수원시 인구이동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총전입 <sup>1)</sup>	184,402	200,113	196,453	172,210	187,806	168,204	166,718	151,826
총전출 <sup>2)</sup>	197,102	175,865	178,195	169,975	193,564	179,518	159,012	157,015
순이동 <sup>3)</sup>	-12,700	24,248	18,258	2,235	-5,758	-11,314	7,706	-5,189

자료 : 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1) 경기도 내 타시군에서 전입+타도에서 전입+수원시 내 이동

2) 경기도 내 타시군으로 전출+타도로 전출+수원시 내 이동

3) 전입-전출 : 수원시로 들어온 인구와 나간 인구의 차이로, 양수는 인구 유입(순유입), 음수는 인구 유출(순유출) 의미

- 2024년 기준 수원시 전입 전과 전출 후 거주지 1순위는 모두 “화성시”, 최근 평택시 전입·전출 증가

  - (수원시 전입 전 거주지) 2024년 이전까지 화성시와 용인시가 1순위와 2순위 반복. 2024년 화성시가 1순위
  - (수원시 전출 후 거주지) 최근 15년간 화성시가 가장 높은 순위 차지
- 화성시와 용인시 이외에 최근 15년간 전입 전 거주지 비율은 안양시보다 평택시가 높아졌고, 전출 후 거주지 비율은 안산시(7.0%)와 안양시(2.7%)에서 성남시(3.4%)와 평택시(2.9%)로 증가
- 향후 수원시는 신도심의 주택가격 고가 및 공급부족, 구도심 노후화로 인한 순유출 지속 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구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신축 공급으로 신도심 집중도 분산, 비주거용 공실을 청년주택 및 공동주거지 등으로 활용하는 등 정책 필요

표 3-1 | 수원시 전입 전과 후의 거주지

(단위 : 명, %)

순위	2010			2015			2020			2024			
	지역	전입자수	구성비										
전입 전 거주지	1	화성	13,088	13.6	용인	11,900	11.7	화성	10,740	11.9	화성	9,550	11.1
	2	용인	7,802	8.1	화성	10,158	10.0	용인	9,937	11.0	용인	8,942	10.4
	3	안산	3,354	3.5	안산	3,955	3.9	성남	3,355	3.7	성남	3,059	3.5
	4	안양	2,719	2.8	성남	3,849	3.8	안양	2,763	3.1	안산	2,406	2.8
	5	성남	2,540	2.6	안양	3,506	3.5	안산	2,491	2.8	평택	2,236	2.6
전출 후 거주지	1	화성	18,602	17.1	화성	24,528	24.7	화성	21,536	21.2	화성	16,046	17.6
	2	용인	13,050	12.0	용인	10,278	10.3	용인	11,848	11.7	용인	11,094	12.1
	3	안산	7,636	7.0	성남	2,508	2.5	오산	3,517	3.5	오산	4,372	4.8
	4	오산	3,048	2.8	오산	2,387	2.4	성남	3,281	3.2	성남	3,137	3.4
	5	안양	2,965	2.7	평택	2,121	2.1	평택	3,255	3.2	평택	2,673	2.9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7. 1인 가구

□ '24년 수원시 1인 가구 비율은 36.2%(60대 이상 26.9%)로 '10년 대비 11.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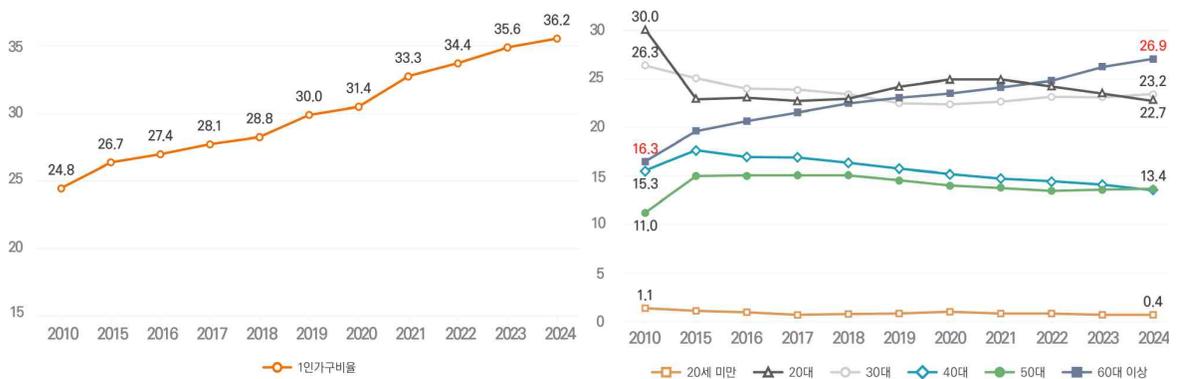
○ 취업·주거 불안정, 가치관 변화로 인해 비혼·만혼 확산, 배우자 사망, 자녀 독립, 이혼 증가 등으로 60대 이상 1인 가구 증가, 원룸, 오피스텔, 공유주택 등의 확대로 혼자 살기 쉬운 도시환경 형성

□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 고령층은 건강 악화, 고독사, 정보 소외 등 위험이 높고, 청년층은 정신적 고립, 우울감, 취업불안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동반

□ 수원시는 1인 가구 특화 주거정책 도입(소형 임대주택, 공유주택, 세어하우스, 장기임대 등), 고령 1인 가구 전수 등록제 및 모니터링(고독사 예방 등)을 시행하여 지속적인 1인 가구 모니터링 필요

그림 3-7 | 수원시 성별 및 거주 유형별 1인 가구

(단위 :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e지방지표 1인 가구 비율

## 8. 소결

- 수원시는 출생아 수 감소, 합계출산율 하락, 중위연령 증가 등 인구 자연감소와 부양 부담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형적인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직면
  - (인구감소) 수원시 총인구는 199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나 인구성장률은 1998년 6.94%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1990년대 후반 급격한 성장기를 지나 2024년 인구 정체·감소 단계에 진입
  - (심각한 저출산) 수원시 합계출산율은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1.23~1.34명 사이를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 ☞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자녀 양육비 부담(26.9%)과 주거비 부담(22.9%) 때문
  - (급속한 고령화와 부양 압력 증가) 2024년 기준 총부양비 33.7명에서 2040년 57.6명, 노령화지수 340 전망, 중위연령 49.4세로 7.2세 증가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유소년(15세 미만) 및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증가(2040년 유소년인구 1명당 노인인구 3.4명)로 부양 압력과 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 전망
  - (1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 1인 가구 비율 36.2%('24), 그중 60대 이상이 26.9%로 최다 ☞ 1인 가구 증가는 사회적 고립, 고독사,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야기
  - (생활권은 전입 및 전출 증감에 영향) 인접 화성시와의 전입·전출 규모가 가장 크고,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구도심 이탈·신도심 집중이 병존 ☞ 순이동은 도시의 개발 영향에 따라 증감이 반복되나, 수원시의 도시개발은 포화상태로 순유출 지속 시 지역경제 위축
- 수원시의 노인정책은 “연령에 따른 지원”에서 “필요·역할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인식 전환 필요
  - Active Senior 중심의 인식 변화(‘보호대상’ → ‘가치창출 주체’)에 따른 65~74세 액티브 존 일자리·사업화 필요
    - 수원시는 노인 지원 정책을 ‘연령형 감면 정책’에서 ‘노인 활동·취약 지원형 바우처’로 전환해 노인 연령 상향(65→70세)에 따른 투자로 재구조화
    - 뉴시니어 인턴십(65~69세) 제공 : 지역 공공·사회서비스, 도서관·문화시설, 학교 안전·급식, 혁신행정 보조 등에 유급 배치. 민간기업에는 장년 고용 인센티브(시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
    - 시니어 소상공·사회적기업 랩 운영 : 은퇴 전문 역량(회계·품질·세무·영업)을 고도화하여 동네 가게·사회적경제와 멘토-파트너 매칭을 통해 경제적 자립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

- 수원시가 운영 중인 '쏘옥(SsOcC)' 온라인 포털 확대 및 내실화, 4개 구별 특색 있는 '4구 4색 1인 가구 거점 지원사업' 강화, '찾아가는 1인 가구 새빛 솔로라이프 스테이션' 상시 운영

- 고독사 예방 추진단 운영을 통한 부서별 협업 체계 강화, 1인 가구 안부 확인 시스템 및 자원봉사자 연계 프로그램 확대, 위기 상황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출산·보육 지원 정책 강화, 고령화 대응 및 노인복지 확대

-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확대 및 보육 인프라 개선, 일·가족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

- 지역별 노령화지수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 수립,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및 건강·의료 서비스 강화,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및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수원시 도시개발 방향은 고령사회 선제 대응을 위한 구도심 재생·주거 순환·이동권 강화

○ “사라지는 인구, 흔들리는 집값” 시대의 수요순응형 주거정책 마련

- 고령친화 리모델링 바우처 제공(욕실 미끄럼·문턱 제거·난방·조명) 및 재산세 유예 또는 분납으로 거주 지속성 보장

- 홈셰어·방짜개기 가이드라인 마련 : 70세 이상이 소유하는 주거의 유희공간을 청년·돌봄인력과 공유(안전·보험·임대차 표준계약 제공)

- 비주거 공실을 주거·커먼즈로 전환(사적소유→공동체 공유·관리) : 청년·액티브 시니어 공동주거, 수원형 마을케어거점 조성

- 생활권 연계 교통패스 : 화성·용인 등 통근 생활권 연계형 교통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연결

## 제2절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이슈

### 1. 아동·청소년기

#### 1) 주요 특성

- 수원시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전국적인 저출생 추세와 함께 지속적인 감소세
  - 영유아 인구의 경우 용인시 데이터를 참조하면, 0-5세 인구가 전체의 3.6%로 전국 평균 3.3%보다는 높지만 2013년 7.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sup>1)</sup> 수원시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저출생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사
  - 2023년 수원시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11-17세 청소년은 79,158명으로 집계되었으며<sup>2)</sup>, 이는 전체 인구 대비 약 6.6%에 해당
- 아동·청소년기의 주요 특징으로는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디지털 기기 활용도가 높으며, 참여 욕구 증가
  - 2024년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에서 제시된 9대 아동정책 제언을 보면,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참여형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실정
- 현재 아동·청소년 정책은 주로 복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들의 자율성과 참여 욕구 충족에는 한계

#### 2) 주요 이슈

- 수원시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는 교육격차 심화와 정신건강 문제
  - 취약계층 학생들 사이에서 주의력 결핍, 우울증 등 기분장애, 불안증으로 인한 행동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증가
-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과 디지털 격차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부상
  -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소외되는 아동들이 발생했고, 이는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이러한 문제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
-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온라인 학교 폭력 문제 심각<sup>3)</sup>

1)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N0BRU79>

2) 2023년 수원시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수원시청소년재단.

- 학생들의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과 과의존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학생 중심으로 단체채팅 내 조롱·배제 등 온라인 따돌림 사례 증가
-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변질 위험이 커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부작용 심각성에 공감하는 상황
- 최근 국회·지자체 중심으로 ‘학교 내 스마트폰 방지법’ 등 새로운 법·제도 마련 움직임 확산 등으로, 단순 규제보다 예방교육·대안 프로그램 강화 요구

□ 아동의 놀이권과 문화 향유권 보장도 최근 중요한 이슈

- 도시화와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으로 인해 아동들의 자유로운 놀이 공간이 부족하고,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제한되는 문제 지속
- 2024년 아동정책 원탁토론회에서도 놀이와 문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

## 2. 청년기

### 1) 주요 특성

□ 수원시는 청년 친화 도시로서의 잠재력 보유

- 수원시 청년층은 전체 인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2030세대가 전체 인구의 30.8%를 차지<sup>4)</sup>

□ 높은 이동성과 주거 불안정성이 청년층의 주요 특징

- 2024년 기준 수원시와 화성시 또는 용인시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주거지 선택이 유동적임을 암시
- 경제적 측면에서 청년층은 취업 준비와 주거비 부담이 주요 과제로 나타나며, 수원시의 청년 지원 정책 현황을 보면 주거비 지원(청년 월세 지원), 취업 지원, 교육 지원(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 중
- 특히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19-34세 미혼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sup>5)</sup>, 이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

□ 청년기의 다양한 생애 단계(학업, 취업 준비, 사회 진출, 결혼 준비 등)를 고려한 세분화된 지원이 부족하며, 청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보다는 일시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한계

3) 박민진·박영마·정형안(2025), 수원시 초·중·고교생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및 과의존 실태조사, 수원시정연구원

4) “통계로 보는 수원시 20~30세대의 삶, 통계청 보도자료

5)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60146>

## 2) 주요 이슈

- 수원시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거비 부담
  - 수원시 2030 세대가 가장 필요로하는 복지 서비스 중 주거 관련 지원(52.0%)으로 주거 관련 어려움을 겪는 중<sup>6)</sup>
  - 수원시가 2021년부터 독자적으로 시작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지만, 연간 100명만 선정되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
- 과거부터 해결되지 않는 청년들의 취업난
  - 2023년 수원시 15-29세 취업자 수는 93.8천 명으로 2019년(110.9천 명)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3년 수원시 20대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아 고용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
  - 청년들의 직업 선택 시 20대는 '장래성'을, 30대는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수 확대를 넘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
-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2023년 수원시 2030세대의 69.5%가 미혼이며,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의 부담(26.9%)과 주거비 부담(22.9%), 일·가족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19%) 순<sup>7)</sup>
- 향후 청년정책은 개인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필요

## 3. 중장년기

### 1) 주요 특성

- 수원시의 중장년층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하여 상당한 규모를 형성
  - 2024년 기준 수원시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3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16.8만 명(14%)보다도 높은 수치
-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존 노인층과는 차이 발생

6) 수원시사회조사. (2021), 가장 필요로하는 복지욕구(서비스) 유형과 이유

7) 수원시사회조사. (2024), 저출산의 원인

- 교육수준에서 베이비부머(1·2차, 51세~70세)는 고졸이 42.1%로 가장 높은 반면, 일반 노인층(71세 이상)은 초졸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고, 가구 월평균 소득도 베이비부머는 500-600만 원 미만이 50.4%로 가장 많지만, 일반 노인층은 1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아 경제적 여건에서 큰 차이 발생<sup>8)</sup>
-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에서도 베이비부머는 '경제적 부담'이 66%로 가장 높고, 일반 노인층은 '체력이나 건강'이 가장 높아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와 달리 베이비부머의 83% (1차 90.7%, 2차 83%) 이상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음<sup>9)</sup>

□ 수원시는 베이비부머 세대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 개발이 미흡한 실정

-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건강, 여가·문화, 사회참여 등 전 영역에 걸친 정책 개발이 시급

## 2) 주요 이슈

□ 중장년층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불안정과 이중 부담

- 1차·2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은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비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끼인 세대(샌드위치 세대)'의 특성
- 최근 경제활동 중단이나 고용 형태 변화를 경험하는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 심각한 사회적 고립 문제

- 은둔형 외톨이 연구에 따르면 청년 은둔형 외톨이가 점차 중년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40대 이상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족한 상황<sup>10)</sup>
- 기존 정책이 주로 만 35세 이하 청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년 은둔형 외톨이는 정책 사각지대

□ 중장년기의 건강 문제

- 중장년기는 만성질환 발생률이 급증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시기
- 특히 중장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부족한 상황

8) 수원시사회조사. (2024), 성별 및 연령

9) 수원시사회조사. (2024), 노후준비 방법(19세 이상)

10)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2020),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세미나-은둔형 외톨이 국내외 지원 현황과 쟁점 진단 자료'

## 4. 노년기

### 1) 주요 특성

- 수원시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고령친화 정책을 추진 중
  - 수원시의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4%에 해당. 유엔 기준에 따라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되어, 수원시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
  - 수원시는 2016년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고령친화 정책 추진 중
    - 2023년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세부실행계획에 따르면 22개 부서에서 4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운영, 장기요양서비스, 독거노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추진 중
- 노인층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참여 욕구 및 경제활동 지속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교육 수요도 증가
- 현재 노인 정책은 주로 돌봄과 복지에 집중되어 있어,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생산적 활동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부족
  - 특히 건강한 노인들의 사회기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미흡한 실정

### 2) 주요 이슈

- 노년층의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
  - 수원시의 노령화지수<sup>11)</sup>는 2014년 50.8명에서 2024년 127명으로 약 2.5배 증가, 맞춤형 대응 필요
  - 2024년 수원시 전체 가구 중 36.2%가 1인 가구이며, 60대 이상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26.9%로 지속적으로 증가
- 노년층의 건강 문제와 돌봄 문제
  - 고령화 진행에 따라 만성질환자와 치매 환자 수 증가, 돌봄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
  - 디지털 격차로 인해 온라인 기반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응 필요

11)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 제3절 세대별 정책 요구 분석

### 1. 수원시민 세대별 정책 요구 분석 방법론

- 수원시민의 세대별 정책 요구는 2024년 수원서베이 결과를 준용하였으며, 주로 설문 문항 단위로 측정된 지표를 활용하여 세대 간 비교를 통해 도출함
  - 2024년 수원서베이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조사 목적 : 수원시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을 파악하여 수원 시민 중심의 정책 수립에 기여
    - 조사 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3,057명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면접조사(웹 조사 병행)
    - 조사 시기 : 2024.9.3.~2024.11.20.
    - 조사 내용 : 인구 동향, 삶의 질, 경제 및 사회활동, 공간과 환경, 공동체 의식과 사회참여, 시정인식 및 기대 사항
  - 2024년 수원서베이의 조사 영역 중에서 11개 영역을 대상으로 분석
    - 11개 영역 : 사회경제적 특성, 일·경제상황, 거주·이주계획, 교통 및 통근·통학, 양육·교육, 여가·문화, 공원·녹지·환경, 안전·건강, 공동체·자부심, 행복, 시정인식·정책수요
- 2024년 수원서베이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정책 요구는 ‘2024년 아동정책 원탁토론회’ 개최 결과를 활용함
  - 2024년 아동정책 원탁토론회는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임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과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
    - 아동·청소년, 학부모 및 아동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참여(수원시청, 2024년 12월 7일 개최)
  - 주요 의제는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 환경, 가정환경 등 6개 분야

## 2. 세대별 정책 요구 분석

### 1) 아동·청소년 정책 요구

- 2024년 아동정책 원탁토론회 결과 6개 의제(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 환경, 가정환경) 중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분야는 ‘교육 환경’과 ‘놀이와 문화’
  - 교육 환경 분야에서는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격차 해소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기
    -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와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됨으로써 수원교육지원청과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협약 체결로 발전
  - 놀이와 문화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 확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아동의 자율적 여가 시간 보장 등 요구
    - 이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와 여가 시간 부족 문제를 반영
- 안전과 보호 분야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안전 교육, 아동학대 예방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

### 2) 청년정책 요구

- 청년층(18~34세)은 ‘일자리’와 ‘주거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식
  - 청년층은 사회 진입 초기에 해당하는 세대로,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독립’이 매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함
  -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층의 가장 큰 관심은 고용의 ‘양’보다 ‘질’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2024년 수원서베이에 따르면 청년 응답자의 82.4%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임시직·특수고용 형태로 근무 중으로, 청년층의 고용 형태가 정규직 중심이 아닌 비정형 근로에 치우쳐 있어,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대한 정책 요구가 강함
    - 또한 민간 취업알선기관 이용 비율은 63.3%로 가장 높으며, 이와 함께 청년의 4.8%는 창업 준비 중으로 나타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원책 마련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
  -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비와 부채 부담이 경제적 자립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
    - 청년 가구의 부채 보유율은 44.7%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수치
    -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거주 주택 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 순이며, 실제로 생활비 중

주거비 지출 비율이 24.8%로 전체 평균(20.6%)보다 높게 나타남

-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 인식 수준은 73.4%에 불과

○ 여가 및 디지털 문화 측면에서는 세대 간의 뚜렷한 디지털 이용 격차 발생

- 청년층의 온라인 여가활동 참여율은 85.7%로 모든 세대 중 가장 높았으며, 활동 유형으로는 온라인 게임(65.8%), 웹툰 감상(58.5%) 순

- 하지만 일과 여가의 균형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로 높았고, 여가생활 만족도(58.4점) 역시 평균 이하로 나타나 여가시간을 통해서도 정서적 안정감이나 질 높은 여가환경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표 3-2 | 청년층 정책 요구사항

정책 요구	조사 결과
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 창출(81.4%), 민간 취업알선기관 활용도 높음(63.3%)
주거	• 주거비 부담(24.8%) 및 부채율(44.7%) 높음, 주된 부채 원인은 전세·월세 보증금 마련
교육 및 역량 개발	• 평생교육, 직업훈련 수요 증가, 학자금 부담 해소 요구
여가	• 활동 시간은 길지만 만족도 낮음(일과 여가 균형 적절하다고 느낀 비율 (52%))
교통	• 대중교통 의존도 높으나 인프라 만족도 낮음(67.9%)
정주의향	• 세대 중 정주의향 가장 낮음(청년 89%, 중년 92.1%, 장년 97.6%, 노년 98.5%), 주요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기회 부족
건강 및 안전	• 주관적 건강 인식은 긍정적이나 보행환경 및 도시 안전 체감도 낮음
디지털 수요	• 온라인 여가활동 참여율(85.7%), 게임·웹툰 중심

### 3) 중년 정책 요구

□ 중년층(35~49세)은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주거비 부담 완화’, ‘자녀 교육 지원’에 정책 필요

○ 중년층은 자녀 양육, 생애 중기 경력 형성, 주택 마련 등 가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연령대로, 정책 수요 역시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형성

○ 일자리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직업 유지와 경력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중요

- 중년 응답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88.0%로 가장 높고, 상용직 비율은 82.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며, 직업훈련 참여 의향은 38.8%로 높게 나타나 경력 개발에 대한 요구가 큼

- 중년층의 고소득자 비율(700만 원 이상 소득)은 23.2%로 가장 높지만, 가계지출과 부채 부담 역시 상당한 수준이므로 단순한 소득수준보다 순자산 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 필요

- 주거와 부채 문제는 전 세대 중 가장 심각한 세대
  - 중년층의 부채 보유율은 58.1%로 전체 최고 수준이며, 주거비 지출도 생활비 중 2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주택자금 마련,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 특히 주거비용과 교육비를 동시에 부담하는 중년층은 정책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임
- 교육 및 양육 지원은 중년층 정책의 핵심
  - 중년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9.0%로, 모든 세대 중 가장 높고, 공교육 만족도는 66.4점으로 평균보다 낮아,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
  - 또한 미취학 아동 보육 방식 중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50.5%로 나타났고, 유치원(36.8%)과 부모 돌봄(9.3%) 순
  - 이는 맞벌이 비중이 높은 중년층에서 공적 보육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육시설 품질 관리,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조금 확충 등의 정책이 필요
- 교통 불편 인식도가 가장 높게 발생
  - 특히 ‘도로 혼잡’을 통근 시 가장 불편한 요소로 지목한 비율은 34.5%로 전체 평균(29.3%)보다 높음
  - 이는 중년층의 자차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교통망의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반영하며, 광역 교통망 개선, 통근 시간 단축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등이 필요함을 의미

표 3-3 | 중년층 정책 요구사항

정책 요구	조사 결과
일자리 안정성	• 고용 형태 다변화 속 상용직 82.8%, 고소득 비율도 높음(700만 원 이상 23.2%)
재취업 및 전직 지원	• 구직 활동은 민간+공공기관 활용 혼합, 직업훈련 계획 38.8%
부채 및 주거 부담	• 부채 보유율 가장 높음(58.1%), 주거 관련 지출도 높음(주거비 23.4%)
양육 및 교육	• 미취학 아동 보육 방식은 어린이집(50.5%) 및 유치원(36.8%), 사교육 지출도 높은 편
교통	• 자차 이용 비율 높고(62.4%), 통근 시간도 길어 불편함 가장 큼(도로혼잡 34.5%)
정주의향	• 92.1%로 높은 편, 직장·학교 접근성 중요
사회참여	• 사회적 고립도 낮지만 일·가정 양립 스트레스 높아 건강 지원 필요

#### 4) 장년 정책 요구

- 장년층(50~64세)은 ‘건강관리’와 ‘여가 향유’, 그리고 ‘안정적 노후 준비’를 위한 정책 수요 필요
  - 장년층은 경제활동 비중이 높지만, 건강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기존 커리어의 마무리와 향후 노후 준비가 중요해지면서 다층적인 정책 수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세대임
  - 건강관리 분야는 “예방 중심 서비스”와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동시 증가
    - 장년층은 주관적 건강 수준이 비교적 높지만, 신체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다른 세대보다 더 실질적이고 지속적임
    - 의료기관 접근성 만족도는 85.7%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음
  - 일자리·경제 분야는 “경력 후반기 안정성”과 “창업·재취업 준비”에 대한 수요 확대
    - 경제활동 참여율은 75~80% 수준으로 높으며, 근로자 중심에서 고용주·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남. 장년층에서 자영업·프리랜서 비율 상승은 삶의 방식 변화와 은퇴 이후 경제적 불안에 대한 대응으로 판단됨
      - ‘고용 안정성’보다 ‘수입 유지’와 ‘일의 지속성’이 더 중요한 문제로 등장
  - 여가·문화 분야: 여가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세대
    - 장년층은 일과 여가의 균형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세대이며(55.1%가 “균형적”이라고 응답), 여가시간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 중
  - 주거 및 정주 의향 분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정성 → “지역 밀착형 삶”
    - 장년층의 정주 의향은 97.6%로 나타났으며, 주거 이동 의향이 거의 없고, 이주를 고려하는 주된 요인은 가족 근접성과 건강관리의 편의성 때문

표 3-4 | 장년층 정책 요구사항

정책 요구	조사 결과
건강관리	• 주관적 건강 수준 양호, 의료시설 접근성 가장 높음(85.7%)
일자리	• 자영업·창업 관심 비율 높고(15%), 고용주·특수고용 비율 상승
여가	• 활동 참여도 다양, 일과 여가생활 균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됨 (55.1%)
주거 및 정주환경	• 주거 안정성 매우 높음(95.8%), 정주 의향도 97.6%
자녀 및 가족 지원	• 자녀교육 만족도 가장 높음, 육아친화적 환경 평가도 긍정적
디지털 격차 해소	• 일부 온라인 참여 낮지만 문화 향유 활동은 활발
안전 및 교통	• 도시 인프라 만족도 전체 세대 중 가장 높음 (예: 교통 78.6%)

## 5) 노년 정책 요구

- 노년층(65세 이상)은 ‘복지 안전망 확대’, ‘건강 돌봄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가 핵심 과제
  - 노년층은 경제·건강·사회적 관계 등 전반에서 취약성이 커지는 세대로, 도시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안정성과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세대임
  - 복지 분야는 “경제적 지원”과 “돌봄 서비스 확대”가 절대적 주요 수요
    - 기초연금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생활지원사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음
    - 특히 독거노인 증가 비율이 21.4%로 높은 수준, 이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나타냄
  - 건강 분야는 ‘만성질환 관리’, ‘치매 예방’,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수요 증가
    - 노년층의 주관적 건강 수준은 60.3점으로 가장 낮음
  - 디지털 격차 해소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신규 정책 수요’임
    -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노년층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는 더 이상 보조 정책이 아닌 주요 복지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중
      - 온라인 여가활동 참여율 26.0%로 낮은 수준
  - 정주 의향 및 일상 인프라: 지역사회와의 ‘관계 유지’가 가장 중요
    - 노년층의 정주 의향은 98.5%로 가장 높아, 익숙한 지역에서의 생활이 안정감에 큰 영향을 미침
    - 이주 이유는 ‘주거비 부담’과 ‘가족 근접성’이며, 생활기반시설(병원·약국·식료품점·공원) 접근성이 노년층 주거만족도에 핵심

표 3-5 | 노년층 정책 요구사항

정책 요구	조사 결과
복지	• 기초연금 확대, 의료비 완화, 돌봄 서비스 필요성 절실
건강	•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건강한 노화 지원, 주관적 건강 평가 가장 낮음(60.3점)
사회 고립 해소	• 독거노인 증가(21.4%), 금전적 지원자 부족(사회적 고립도 9.3%)
여가	• 충분한 시간 보유(평일 3.7시간, 주말 6시간), 만족도 높으나 지출은 가장 적음(월 평균 12.4만 원)
디지털 격차	• 온라인 여가활동 참여율 26.0%, 관련 교육 수요 증가
정주의향	• 98.5%로 가장 높음, 가족·자연환경 중시
주거	• 주거 안정성 높지만 이주 이유는 ‘주거비 부담’과 가족 근접



## 제4장

# 정책 제안

제1절 수원시민 생애주기별 정책 방향

제2절 수원시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제안



## 제4장 정책 제안

### 제1절 수원시민 생애주기별 정책 방향

- 생애주기별 정책은 연령 단계별 지원보다 각 생애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 구축 필요
  - 현재 생애주기 정책의 한계점은 부서별 분절 운영, 정형적 생애경로 기반의 고정적 정책, 연령 중심 분류의 한계, 수요자 참여 부족, 세대 간 사각지대 발생 등
  - 각 세대별 주요 문제점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세대 맞춤형 정책 발굴 필요
    - 아동·청소년 문제 : 교육격차 심화, 정신건강 위험 증가, 놀이·문화 향유권 부족, 디지털 안전 문제, 취약계층 아동 지원 미흡 등
    - 청년의 문제 : 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낮은 정주 의향, 교육·경력·창업 역량 부족, 여가·정신건강 문제 등
    - 중장년층 문제 : 샌드위치세대(자녀 양육 + 부모 부양) 부담, 일자리 불안정 및 경력단절, 부채 부담 증가(세대 중 가장 높음: 58.1%),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 증가, 건강관리 미흡
    - 노년 문제 : 고령화 가속(노령화지수 133→340), 경제적 취약성, 고독사 위험(1인 가구 증가 및 고립도 9.3%), 건강악화·만성질환 증가, 디지털 소외 등
-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정
  - 첫째,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을 통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와 취약계층을 위한 특수한 서비스를 조화롭게 제공
  - 둘째, 예방과 치료의 균형을 통해 문제 발생 후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둠
  - 셋째, 개별성과 통합성의 균형을 통해 각 생애주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전체적인 연계성 확보
  - 넷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역할과 시장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
  - 다섯째,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통해 당면한 문제 해결과 함께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병행
- 수원시 생애주기별 정책의 기본 방향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
  - 이는 각 생애주기별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 생애주기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예방적 접근을 통해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통합적 관점을 의미

-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방향 설정
  - 첫째, 예방 중심 접근을 통해 생애주기별 위기를 사전 예방
    - 초등 입학, 대학 진학, 사회진입, 결혼·출산, 은퇴·건강 악화 등 '전환기'에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 각 전환기에 맞는 전환기 패키지를 제공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년의 사회진입에 따른 주거독립, 중년의 경력전환, 노년의 건강전환 등 단계별 프로그램 필요
  - 둘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개별적 특성과 요구에 대응
    - 각 세대 내부에서도 소득·가구유형·건강수준·교육수준·이주 여부 등 삶의 맥락 차이가 크므로, 수원시 생애주기 정책은 '청년=미취업', '노인=돌봄필요' 같은 단순 구분 지양
  - 셋째,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접근성과 효과성 향상
    -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을 개별 정책으로 다루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간 연계성 강화 필요
    - '수신제가' 안내서(113개 정책)를 바탕으로 연령 구분을 넘어서는 통합 돌봄·지원 체계 구축(일상돌봄 서비스 포함)
    - 생애주기 이동 과정에서 겪는 교육-주거-고용-돌봄-건강의 총체적 문제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정책 필요
  - 넷째, 지역사회 기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2040년 수원시는 총부양비 57.6명(2024 대비 1.7배), 노령화지수 340명(유소년 1명당 노인 3.4명)으로 재정 부담 증가 전망
    - '노인 생산활동 확대(Active Senior), 일·가정 양립 기반 구축 → 합계출산율 회복', '청년 정주성 강화 → 생산가능인구 유지' 등이 지속가능성 전략의 핵심
- 수원시의 생애주기별 정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 필요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 고령화와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민간 협력을 통한 재원 다양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수원시 내 행정구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
  -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및 인근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한 광역적 서비스 제공

## 제2절 수원시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제안

### 1.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

#### □ 아동·청소년 통합케어 시스템 구축

- 기존에 단편적으로 적용된 아동·청소년 서비스를 통합하는 '수원형 아동·청소년 통합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 보건, 복지, 문화, 안전 등 모든 영역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정책 추진 방식) 행정구별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센터 설치 → 전담 코디네이터가 개별 아동의 종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계획 수립 → 교육청, 보건소, 복지관, 문화센터 등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중복을 방지 및 사각지대 해소
- 예를 들어, 학습부진을 보이는 아동이 발견되면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상태, 가정환경, 영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 창의놀이 도시 조성 사업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창의놀이 도시 수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의 획일적인 놀이터를 벗어나 아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놀이 공간을 조성
- (정책 추진 방식) 44개 행정동별 최소 1개씩 '모험놀이터'를 조성하여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또는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방과후 놀이센터'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제공
- 아동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수원시 특성을 살린 '역사놀이 체험관'을 수원화성 일대에 조성하여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프로그램 운영

#### □ 디지털 리터러시 및 온라인 안전교육 강화

- 디지털 격차 해소와 건전한 디지털 시민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윤리, 사이버 안전, 정보 판별 능력 등을 포괄하는 프로그램 제공
  - 수원시 초·중·고등학생 5명 중 1명(21.9%)은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 2.6%, 잠재적 위험군 19.3%)<sup>1)</sup>
  - 아동·청소년이 '칭개구리'와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건전한 디지털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동시에 초·중·고 단계별 디지털 시민성 교육 의무화, AI 기반 유해 정보 차단 시스템 지원, 교사·학부모 대상 온라인 안전교육 확대 등 통합적 보호 체계 구축 필요

1) 박민진·박영마·정형안(2025), 수원시 초·중·고교생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및 과의존 실태조사, 수원시정연구원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서는 '디지털 격차 제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기기 지원, 인터넷 환경 개선, 개별 맞춤형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가 아닌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코딩, 영상 제작, 게임 개발 등의 교육 기회 확대

#### □ 아동 정신건강 전문 지원체계 확대

- ADHD·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원체계 부족
- 학교-수원교육지원청-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강화,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한 학교 기반 선별검사 정례화, 위기아동 전담 상담사 배치 및 심리치료 바우처 지원 등

## 2. 청년정책 제안

#### □ 청년 라이프케어 통합 플랫폼 구축

- 기존의 59개 청년 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청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라이프케어 통합 플랫폼' 구축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하여 접근성과 편의성 극대화
- (정책 추진 방식) 플랫폼은 개별 청년의 상황(소득, 주거, 취업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 조합을 추천하는 AI 기반 맞춤 서비스 제공
- 예를 들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는 청약카드(청년 교통카드), 면접 정장 대여,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아시아 청년 포럼, 청년 마을사랑방 등을 연결
- 청년 간 네트워킹과 상호 지원을 촉진하는 '청년 버디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상호 성장 도모 → 정책 수혜자는 향후 멘토가 되어 새로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 형태의 시스템

#### □ 청년 주거 안정 종합 계획

- 기존의 월세 지원을 확대하여 연간 지원 인원을 현재 1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5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 (세부정책 ①) '청년 공유주택 프로젝트' 도입 : 수원시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개인 공간은 최소화하고 공용 공간은 최대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청년 간 네트워킹과 상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
- (세부정책 ②) '청년 주거 상향 이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청년이 성장 단계에 따라 원룸 → 투룸 → 분양주택으로, 단계적으로 주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지원과 상담 서비스 제공

- 수원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우대 금리를 적용
- (세부정책 ③) 청년 정주 인센티브 기반 '수원형 청년패스(SY PASS)' 도입 : 청년 월세 지원 + 교통비 + 지역화폐(문화·여가) 결합, 수원 내 취업 시 '정착 보너스' 지급, 특정 지역(구도심) 거주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 □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존의 일자리 매칭에서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으로 확장
- (세부정책 ①) '청년 직무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데이터 분석, AI 활용, 디지털 마케팅 등)을 교육
  - 수원시의 '수원 와이즈 아카데미', 청청재단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직무멘토링(삼성전자 임직원 재능기부) 사업과의 차별 → 삼성전자 등 수원시 소재 대기업과 협력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 수료생에게는 채용 우대 혜택을 제공
- (세부정책 ②)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사업'을 통해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
  -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의 지원사업과 '아시아 청년 포럼'을 확대하여 국내외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전용 창업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창업 자금 지원

#### □ 청년 생애설계 지원 프로그램

- 결혼·출산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생애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단순히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세부정책 ①) '청년 라이프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별 청년의 가치관, 목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생애설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재정 계획, 경력 개발, 인간관계, 건강 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코칭을 제공
  - 유사사례 : 부산시 청년창조발전소의 '주도적인 삶을 위한 『청년 자립 코칭』'
- (세부정책 ②) '청년 커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커플에게 필요한 주거 및 재정 상담, 결혼 준비 교육, 소통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건전한 가정 형성 지원
  - 서울, 인천, 대전, 수원 등에서 추진 중인 '커플 매칭 사업(청년만남지원사업)'에서 벗어나 결혼을 전제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성

### 3. 중장년 정책 제안

#### □ 중장년 사회적경제 확대 프로젝트

- 404개 사회적경제 기업<sup>2)</sup>을 1,000개로 확대하는 '중장년 사회적경제 확대 프로젝트' 추진
  - 중장년층의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
- (세부정책 ①) '중장년 사회적 기업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체계적으로 양성
  - 6개월간의 집중 교육과 1년간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창업을 지원
- (세부정책 ②) '중장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중장년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
  - 카페, 레스토랑, 반찬가게, 세탁소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분야에서 중장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협동조합 모델을 개발
- (세부정책 ③) '수원형 중장년 경력전환 패키지(Career 2.0)' : 40~50대 경력자 대상 '맞춤형 커리어 관리 프로그램', 전직지원 컨설팅 + 신기술 재교육(디지털·AI·경영), 기업-중장년 직무 매칭 프로그램
  - 전문 경력자의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재배치 정책 확대(뉴시니어 인턴십과 연계)
- (세부정책 ④) '중장년 부채·주거 부담 완화 정책' : 자녀 교육비·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재무 스트레스 완화, 중장년 대상 가계 재무코칭 서비스 제공, 주거 리모델링 지원(고령친화·안전 설비 포함), 구도심 주거 환경 정비 → 중장년 정주성 강화

#### □ 중장년 건강 100세 프로젝트

- 중장년기의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중장년 건강 100세 프로젝트' 추진
  -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중장년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
- (세부정책 ①) '중장년 종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별 중장년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정기적인 건강검진, 개인별 운동 처방, 영양 상담, 스트레스 관리 등을 패키지로 제공
- (세부정책 ②) '중장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중장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

2) 수원도시재단. (2020). 사회적경제([https://www.sscf2016.or.kr/mb\\_five\\_01.do](https://www.sscf2016.or.kr/mb_five_01.do))

- 직장 스트레스, 가정 문제, 건강염려 등 중장년 특유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제공

- (유사사례) 경주시, 울릉군, 안동시, 양산시, 영주시 '비움, 채움 후 새로움'

#### □ 중장년 평생학습 혁신 사업

○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년 평생학습 혁신 사업' 추진

- 기존의 취미 중심 평생교육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 제공

○ (세부정책 ①) '중장년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기본 역량 교육

- 스마트폰 활용, 온라인 쇼핑, 화상회의, 온라인 banking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부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고급 기술까지 단계별로 교육

○ (세부정책 ②) '중장년 전문 자격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원하는 중장년에게 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

- 돌봄, 상담, 교육, 문화예술 등 중장년의 경험과 지혜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의 전문 자격 취득을 집중 지원

## 4. 노년 정책 제언

#### □ 시니어 인재 활용 혁신 프로젝트

○ 기존의 단순 공익활동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혁신하여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는 '시니어 인재 활용 혁신 프로젝트' 추진

- 어르신들을 도움의 대상이 아닌 사회 발전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기 부여

○ (세부정책 ①) '시니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분야의 전문 경력을 가진 어르신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

- 기업 경영, 교육, 기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시니어 전문가가 청년 창업가 멘토링, 평생교육 강사, 기술 자문 등의 역할 수행

○ (세부정책 ②) '시니어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어르신들의 풍부한 인생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

#### □ 어르신 디지털 포용 프로젝트

- 디지털 격차로 인한 어르신의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는 '어르신 디지털 포용 프로젝트' 추진
  - 기기 사용법 교육 이외에도 어르신이 디지털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
- (세부정책 ①) '어르신 디지털 튜터 양성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어르신들을 튜터로 양성하여 또래 어르신들을 교육하는 상호 학습 체계 구축
  - 이는 교육 효과뿐만 아니라 어르신 간의 사회적 연결과 역할 부여 효과 또한 기대
- (세부정책 ②) '어르신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어르신들이 온라인에서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취미 활동, 평생학습, 자원봉사 등 어르신의 관심사별로 온라인 그룹을 형성하고 오프라인 활동과 연계

#### □ 어르신 건강 장수 지원 사업

- 건강수명 연장과 활동적 노화를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 장수 지원사업' 추진
  -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 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세부정책 ①)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별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특성에 맞는 운동, 영양,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관리, 치매 예방, 낙상 방지 등 어르신 특화 건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
- (세부정책 ②) '어르신 사회참여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 증진 도모
  -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참고문헌

## 국문자료

박민진·박영마·정형안. (2025). 수원시 초·중·고교생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및 과의존 실태조사, 수원시정연구원

박민진. (2025). 수원 청년의 삶과 청년정책의 방향성, 청년포럼 발표 자료(2025.08.30.)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2024). 2023년 수원시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수원시

수원시. (2024).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보도자료(2024.11.25.)

## 신문기사 / 웹사이트 / 통계자료

국가데이터처. (2021.10.28.). 통계로 보는 수원시 20~30세대의 삶, [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30301010100&bid=5110&tag=&act=view&list\\_no=414777&ref\\_bid=](https://www.kostat.go.kr/board.es?mid=a30301010100&bid=5110&tag=&act=view&list_no=414777&ref_bid=)

국토교통부. (2018.10.24.).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 3대 핵심영역의 정책과제 제시. [보도자료] <https://smartcity.go.kr/>

복지헬로. (2024). 꿈과 열정엔 나이가 없습니다! 수원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https://blog.naver.com/suwonloves/223684352537?trackingCode=rss>

수원도시재단. (2020). 사회적경제. [https://www.sscf2016.or.kr/mb\\_five\\_01.do](https://www.sscf2016.or.kr/mb_five_01.do)

수원시. (2025). 수신제가. [https://news.suwon.go.kr/ebook/site/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50325\\_081350&popup=1&ref=https://news.suwon.go.kr/ebook/home/index.php](https://news.suwon.go.kr/ebook/site/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50325_081350&popup=1&ref=https://news.suwon.go.kr/ebook/home/index.php)

수원시사회조사. (2023). 노후준비 방법(19세 이상). [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611&tblId=DT\\_611003\\_2023A007&dbUser=NSI\\_IN\\_611](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611&tblId=DT_611003_2023A007&dbUser=NSI_IN_611)

수원시사회조사. (2024). 성별 및 연령. [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611&tblId=DT\\_611003\\_2024A002&db User =NSI\\_IN\\_611](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611&tblId=DT_611003_2024A002&db User =NSI_IN_611)

수원시사회조사. (2024). 저출산의 원인 [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611&tblId=DT\\_611003\\_2024B018&dbUser=NSI\\_IN\\_611](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611&tblId=DT_611003_2024B018&dbUser=NSI_IN_611)

수원시 장안구. (2024). '2024년 아동정책 원탁토론회' 참여 아동 모집. [https://jangan.suwon.go.kr/bbsplus/vw.asp?code=tbl\\_bbs\\_notice&no=MzE5ODYg&page=40](https://jangan.suwon.go.kr/bbsplus/vw.asp?code=tbl_bbs_notice&no=MzE5ODYg&page=40)

**연구책임자** 김도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미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신예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지원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김군수 (前 경기연구원 부원장)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미리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SRI-전략 2025-03

## 수원시민의 생애주기별 특성 변화 분석

An Analysis of Changes in Life Cycle Characteristics of Suwon Citizens

**발행인** 김성진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5년 11월 30일

**발행** 2025년 11월 30일

**ISBN** 979-11-6819-197-6(93330)

© 2025 수원시정연구원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김도훈. 2025. 「수원시민의 생애주기별 특성 변화 분석」.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